

광주 도심 폭우엔 ‘속수무책’ ‘물바다 방지’ 대책 서둘러야

20년 빈도로 설계된 하수도 용량 집중호우에는 감당 못해 침수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비 확보 시급

광주시가 올 여름에도 집중 호우 가능성이 예보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를 물바다로 만들었던 '500년 빈도 폭우'가 올해도 내린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폭우시 범람하는 영산강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최대 20년 빈도로 설계된 하수도 용량을 확장하는 게 시급하지만, 수조원대로 추산되는 천문학적인 예산확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예산이 있더라도 최소 수년간의 정비기간도 필요해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8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고, 국지성 호우도 우려된다는 예보에 따라 비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지난해처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경우엔 일부 지역의 침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광주시의 우려다.

실제 지난해 8월 7-8일 이틀간 500년 빈도(500년 만에 한번 내릴 가능성) 누적 강우량을 넘어선 516.1mm가 쏟아지면서 영산강 등 국가하천이 넘치고, 하수가 역류해 시민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또 주택 915동이 침수되는 등 1420억원의 역대급 재산피해를 입었다. 당시 빗물 등이 빠져나가야 할 하천이 범람하면서 하천물이 되레 하수관로를 타고 도심으로 유입돼 피해를 키웠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48시간 기준 447.6mm), 지방하천은 최대 100년 빈도(400.9mm), 하수

관로는 최대 20년 빈도(299.3mm)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500년 빈도 폭우가 쏟아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특정 시간대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 패턴이 반복됨에 따라 수시로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재난·재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상습 침수피해를 없애기 위해선 하수관거 용량 확장 및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하천 준설 및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광주시는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예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1120억원을 투입해 상습 침수지역인 우산지구와 화정 농성지구, 문흥동 성당 일원, 신안고 일원, 북구청 사거리 일원, 주월 명성지구 등 6개 지역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국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침수피해예방 시설이 모두 구축될 때까지 집중호우 예보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호우 피해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하수도 유입구 관리제 시행, 국가하천 배수문 53개소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도입, 배수펌프장 17개소 가동, 하수시설물 사·차지구 합동점검, 도로시설물 정비 등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3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침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 광주 도심 구조로는 지난해처럼 폭우가 쏟아질 경우 침수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침수 해소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년 최저임금 9160원 ... 5.1% 인상

월 환산액 191만444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9면>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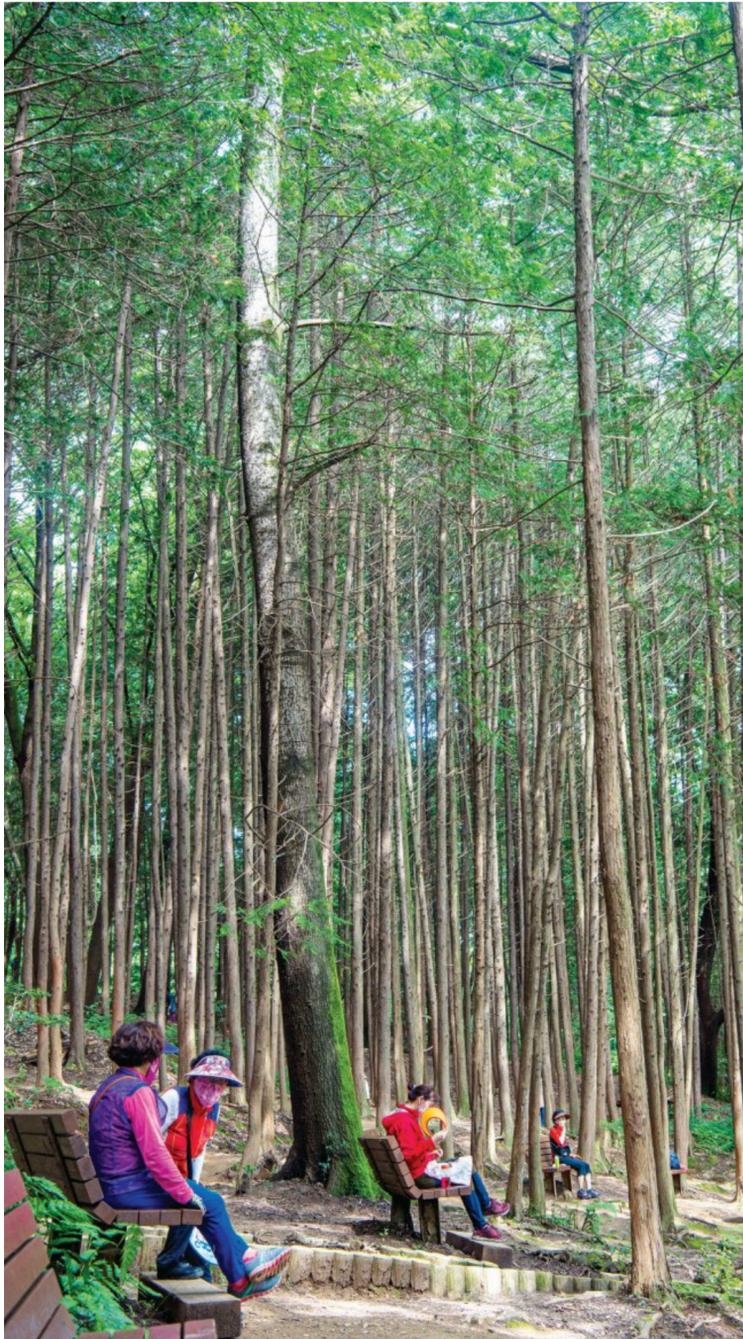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

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연합뉴스

광주,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나무 그늘 아래 피서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13일, 광주 북구 중외공원 산책로를 찾은 시민들이 의자에 앉아 휴식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적 모임 8명까지 가능 모든 행사와 집회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

15일부터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관련기사 2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수도권으로부터 풍선 효과와 지역 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은 현재와 같이 8명까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자들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은 유보한다. 또 유흥업소 등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지난 1주일(6~12일)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84명(하루평균 12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하루 평균 15명에는 못 미쳤지만, 선제 대응차원에서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민관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풍선효과 우려 등에 따라 수도권 4단계 시행 종료 예정인 25일까지 수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단계 격상으로 시민 불편, 경제적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며 “이제 겨우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선 이날 오후 2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명이 추가돼 누적 3053명이 추가됐다. 2명은 각각 서울 마포구 음식점, 경기 영여학원 관련이다.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데, 이 중 1명은 남구 중학교 학생, 1명은 남구 병원 종사자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여수에서만 3명 나와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738명이 됐다. 하루 전인 지난 12일에는 여수 7명, 목포 3명, 나주 2명, 순천 1명 등 모두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틀간 서울·경기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이들이 3명이나 되고, 초등학교 한 곳과 고교 2곳에서 학생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13일 확진자는 여수 한 고교 2학년 같은 반 학생 2명(전남 1739, 1740)과 여수지역 소형 건설사 여직원(1741번)이다. 지난 12일 여수 확진자는 여수 모 여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3학년 학생(1837번), 여춘마을 횡집 직원(1735번), 시청 공무원(1736번) 등이다. 나머지 여수 신규 확진자 3명(1727-1729번)은 서울·경기지역 확진자와 접촉,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목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 2명(1733, 1734번)과 1733번의 가족(1732번)이 잇따라 확진됐다.

한편 최근 사흘 동안 15명의 확진자가 나온 완도 금일도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 다만 완도군은 읍장 취임식 과정에서 방역 수칙이 일부 지켜지지 않은데다, 취임식 행사로 인해 다수의 확진자 발생을 초래했다는 판단 아래 금일읍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민주당 대선 경선, 역전 노리는 추격자들 ▶3면
- 침묵 깬 학생들 “10명이 1명 괴롭혔다” ▶6면
- KIA ‘7월 전승’... 코로나에 웃지 못할 기록 ▶18면

층층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층층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시니스피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링룸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시니스피어 : 02-541-9270 • 고객센터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